

## 2. 브랜드별 카메라의 특징 집중 분석 디지털카메라의 끝없는 진화, 신기술 열전은 계속된다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4월만 되면 디지털카메라 매장은 봄나들이를 가려는 사람들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북적인다. 그러나 급변하는 정보기술(IT) 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카메라의 진화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소비자들이 카메라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카메라는 전문적인 기능을 갖춘 DSLR 부터 가볍고 편리한 기능의 콤팩트 카메라, 최근엔 미러리스 카메라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카메라는 가격만 보고 구매해서는 안 되며, 쓰임새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카메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소중한 추억을 한장 한장 담아내는 카메라. 어느덧 우리 생활 깊숙이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본 고에서는 브랜드별 카메라의 특·장점에 대해 소개한다.

글/(주)다나와 디지털카메라CM 양아열

그동안 디지털카메라는 단순히 찍는 기능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 출시되는 제품은 컬러풀한 색상과 디자인, 사진을 좀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필터효과 등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 우리의 구매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현재 출시되는 디지털카메라 대부분이 1000만 화소를 뛰어넘는 제품들이다. 한동안 디지털카메라 시장이 화소와 줌의 경쟁 중심에 있었다면 2009년부터는 HD를 넘어서 풀HD촬영기능 탑재, 밝은 조리개 값을 가진 콤팩트 디카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미러리스(하이브리드) 디카의 성장과 DSLR의 보급화와 소형화 등이 화두로 떠오르며 시장은 마치 '신기술 열전'을 선보이는 듯하다. 또한 무선전송시스템을 갖춰 와이파이가 되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사진전송이 가능해져 유튜브나 자신이 지정해놓은 사이트로 전송도 가능하다. 이처럼 디지털카메라는 단순기능에서 벗어나 다양한 부가기능을 갖추면서 소비자들에게 '찍는 맛'과 '활용의 맛'을 고루 느끼게 해주고 있다.

2011년은 특히 국내외적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소셜네트워크 시대로 접어들면서 네트워크 기능뿐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상황에 맞는 장면모드를 선택해 촬영해주거나 다양한 필터효과를 통해 재미있으면서도 나만의 사진 찍기 모드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파노라마 영역도 다시금 보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동안 파노라마 촬영은 몇몇 제품에만 탑재되거나 필요한 경우 자신의 컴퓨터에서 몇 장의 사진을 붙여서 합성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디카들이 파노라마 기능을 대부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 사용이 편리해졌다.

### 브랜드별 특이한 기능의 카메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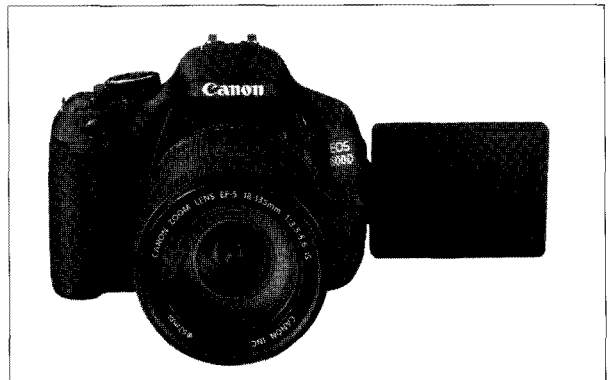
2010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2011년까지 출시된 제품들 중에 눈에 띄는 제품들이 있다. 전체적으로 특이하다고 해서 가격이 비싼 것은 아니다. 다만 특이한 만큼 몇몇 기능은 제한된다거나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예를 들어 줌을 강화할 경우나 두께를 얇게 만들 경우 어두워지는 조리개 값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품의 디자인이 투박하거나 기능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출시되는 콤팩트 디카 등에서는 오히려 이런 점을 잘 이용하여 광각기능을 강조하면서 고감도의 빠른 기동성을 앞세우기도 한다. 기술의 평준화로 인해 과거에는 일부 제품에만 갖추고 있던 기능이 이제는 많은 제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브랜드별로 꼼꼼하게 살펴보면 자사만의 특징적인 기능을 강조한 제품이 있는 만큼 이런 점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캐논>

##### 보급형DSLR 시장 리드-회전액정 기능 눈길

캐논제품은 정통적으로 가격대 성능비가 우수하다는 평이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높은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보급형 DSLR의 시장을 여는 동시에 리더로서의 역할로 많은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PowerShot 시리즈, IXUS 시리즈, EOS 시리즈이다. 최근 콤팩트 라인업 제품은 HS시

스템을 통해 저 노이즈의 뚜렷하면서도 퀄리티 높은 사진촬영이 가능해졌다. 렌즈교환 카메라 제품에 있어서는 회전액정으로 눈길을 끌었던 60D와 함께 이번 2011년 발매를 시작한 600D 또한 액정이 돌아가고 있어 하나의 코드로 자리 잡았다. 원조격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점을 잘 이용하는 모습이다. 이외에도 고배율 줌 제품이나 캐논의 하이엔드 라인업인 G시리즈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 '역시'라는 단어가 어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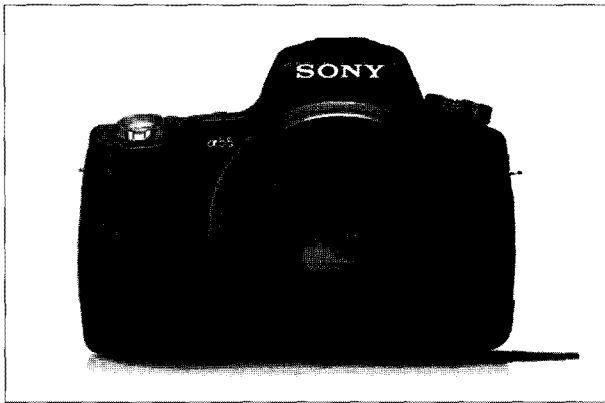
▶추천모델 : Canon EOS 600D(사진), 60D

#### <소니>

##### 슬림과 디자인은 기본! 이전 기능까지 업그레이드

과거의 디자인에 있어 혁신적인 제품 출시로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는 항상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제조사이다. 과거 F시리즈의 독특한 점이 매력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T시리즈와 WX시리즈가 콤팩트 디카의 견인차 노릇을 하고 있다. 최근 HX시리즈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넣은 제품이 나오고 있다.

최근 소니는 콤팩트 디카나 DSLR 제품보다는 미러리스 디카와 DSLT라 불리는 제품라인업에 개발역량을 쏟아 붓는 경향이 강해 보인다. 미러리스 디카는 현재 NEX-5, NEX-3 제품이 디카 시장에서 높은 지지를 받아 인기리에 팔리고 있으며 렌즈교환 카메라 시장에서는 A55(알파55)가 보급형 최초로 초당 10연사 기능과 GPS기능, 풀HD 동영상 촬영 등 다양한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국내외적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다. 소니의 경우 이미지 처리엔진 효과를 위해 자사의 영상처리칩셋인 BIONZ센서가 렌즈교환형 카메라



▶추천모델 : SONY A55(사진), SONY Cyber-Shot DSC-HX7V

라와 콤팩트 카메라에 탑재되고 있으며, 이미지센서에 있어서는 Exmor CMOS 센서가 탑재되어 저 노이즈, 고화질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고급형 제품의 경우, Carl Zeiss (칼자이츠) 렌즈와 G 렌즈 탑재로 높은 인기를 유지중이다. 최근 눈에 띄는 제품을 꼽자면 DSC-HX7V 제품이다. 풀 HD동영상, 3인치 액정을 갖추고 있으며 화질, 줌, 활용성에서는 극강의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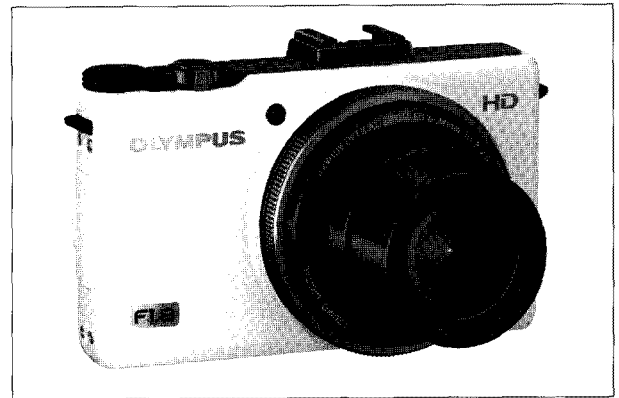
### 〈올림푸스〉

카메디아의 영광을.. 광학기기의 명성을 한 단계 더 높인다

국내시장에서 2003년 판매 1위의 위치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그 모습을 뒤로한 채 방수디카 제품군과 독특한 컨셉의 제품들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이루고 있다. '하이브리드' 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으며 현재 자사의 PEN카메라 라인업을 통해 PENia라는 층을 새롭게 만들어 운영 중이다. 얼마 전 모델이 원빈으로 바뀌면서 모델마케팅을 통해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꾸준히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출시되는 제품은 기존에 비해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XZ-1의 경우 조리개 값이 F1.8을 가진 콤팩트 디카로 동급 제품들 중에서도 최상위급에 속한다. 관련 액세서리중 블루투스 방식을 통해 전송 가능한 것이 있다. 이 제품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동영상 전송이 가능하다. 내시경을 만드는 회사답게 독특한 플래시를 출시하는 등 기발한 발상으로 많

은 유저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최근 올림푸스 제품은 남성유저보다는 여성유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현재 주력제품은 E-PL2와 XZ-1이다. 그 외 제품라인업은 기존의 방수 디카 라인업인 터프 시리즈와 FE시리즈와 고배율 줌 제품들이다. 얼마 전 올림푸스에서 자사의 최초 풀HD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추후 디카시장에서 동영상으로 불꽃 튀기는 경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모델 : E-PL2(사진), XZ-1

### 〈펜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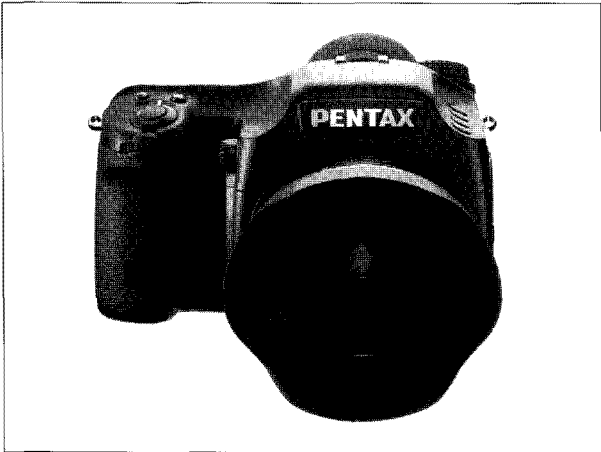
LED플래시를 부착한 방수카메라..

중형카메라의 새로운 기원을 열어준 645D

펜탁스는 최근 색상마케팅으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 특히 핑크, 화이트 색상의 렌즈교환 제품이 타 업체에는 거의 없었던 탓에 많은 유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능과 결과물에 있어서도 뛰어난다는 평을 받고 있어 기존 펜탁스 유저들뿐만 아니라 신규로 구매를 고려중인 일반 유저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렌즈에 있어서는 Limited 렌즈군을 중심으로 콤팩트스타일을 유지하며 크기와 화질의 장점을 극대화 하고 있다.

DSLR카메라와 렌즈뿐만 아니라 콤팩트 디카에 있어서 펜탁스 디카 제품 또한 복고풍의 디자인과 DIY 작업을 통해 직접 케이스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제품 등 기존의 고정된 컨셉과 다른 제품이 출시되어 여성유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다.

펜탁스 제품 중 눈에 띄는 제품을 꼽자면 K-5와



▶추천모델 : 645D(사진), WG-1 GPS

645D이 있다. K-5의 경우 국내외에서 모두 인기가 좋았는데, 이러한 인기 탓에 국내에서는 한동안 구매가 어렵기까지 했다. 645D의 경우 펜탁스의 첫 디지털 중형카메라로 국내에는 2011년 3월달 처음 정식 발매가 시작되었다. 가격은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지만 중형카메라 제품을 비교할 때는 보급형의 가격대를 보이고 있어 이 시장에서도 불꽃 튀기는 경쟁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먼 이야기일수도 있지만 중형카메라 제품들도 국내 가격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로 출시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펜탁스 제품에 있어 2011년 발표된 제품 중 독특한 컨셉으로 WG-1 GPS가 있다. 이 제품은 GPS와 방수기능을 갖춰 최근 방수디카제품들의 트렌드를 답습했지만 가장 눈여겨 볼만한 것은 본체에 작은 LED전등이 부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중에서 촬영시 보통 빛의 확보가 어려운 점을 일정부분 해소하면서 좀 더 다양한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치 모 시계 브랜드의 느낌과도 비슷한 느낌을 준다.

〈니콘〉

딱 채워진 라인업, 콤팩트 디카 명가의 부활도 멀지 않은 듯  
 니콘의 경우 한동안 콤팩트 디카보다는 DSLR제품이 국내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콤팩트 디카 제품들이 기능의 고급화, 차별화를

통해 국내에서도 조금씩 인기가 상승 중에 있다. S1100Pj의 경우 터치기능과 더불어 프로젝터 기능을 갖춰 밤중에 사진촬영한 이미지를 여럿이 본다거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 눈여겨볼 제품은 니콘에서도 최초로 36배 고배율 줌이 가능한 P500과 풀 HD동영상 촬영과 조리개 F1.8의 가진 P300이다. 두 제품 모두 니콘이 국내시장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잡고 갈 제품이면서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기능들인 탓에 한마디로 실험적 제품이라 볼 수 있다. 가격에 있어 니콘의 콤팩트 디카 제품은 선택의 폭이 가장 넓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10만원대 이하 제품도 종종 나오고 있으며 고가의 제품의 경우 50만원 이상도 있는 편이다.

분명 국내에서 DSLR제품에 대해 인지도나 판매율은 높은 편이나 현재는 D7000, D90 등 몇몇 인기있는 제품을 제외하고서는 인기가 높지 않다. 물론 가격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1자리수 제품의 경우에는 뛰어난 성능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사용하는 타겟층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 유저들에게 있어 '그림의 떡'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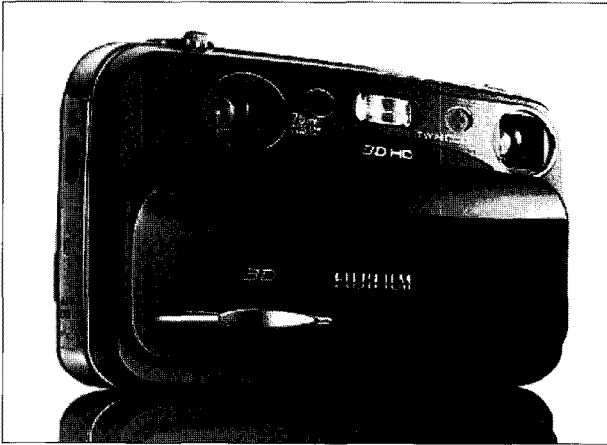
얼마 전부터 니콘에서도 미러리스 디카 시장의 진입을 서두르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 기대감을 부풀게 만들고 있다. 정확히 언제발표라는 말은 없지만 조만간 출시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본다.

〈후지필름〉

필름맛 그대로의 기술을 디지털로 표현해



▶추천모델 : 니콘 P300, P500(사진), S1100Pj



▶추천모델 : FUJIFILM FinePix 3D W3(사진), FUJIFILM FinePix X100

후지필름은 전통적으로 색감에 대해 강력한 장점을 가진 브랜드이다. 필름제조사의 노하우가 디지털카메라에도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타 회사에는 없는 필름스타일의 모드를 살린 제품들이 많다.

후지필름 제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기존의 EXR카메라보다는 3D기능을 가진 3D W3 카메라와 클래식디카의 신기원을 수립한 X100이다. 듀얼렌즈를 갖추고 있는 3D W3는 현재 판매중인 카메라중 제대로 된 3D 촬영을 하게끔 만들어준다. 각각의 렌즈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함께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촬영이 가능하다. 3D촬영 후 제대로 된 이미지를 보기위해선 3D 기능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X100의 경우 2011년 정식 발매를 시작한 제품으로 3월달 처음 국내에서 예약판매가 시작되었다. 이 제품은 조리개 수치가 F2.0의 단렌즈를 갖추고 있으며 카메라 최초로 하이브리드 뷰파인더라는 새로운 개념을 갖추고 있다. 또한 완벽한 수동조작으로 디지털과 아날로그 감각을 동시에 표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재 국내 수요에 비해 공급량 자체가 적은 탓에 원활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삼성전자〉

무선정송, GPS, 듀얼미러 등 새로움에 도전한다

삼성전자(이하는 삼성으로 언급)의 디카는 전체적으

로 사진보다는 재미와 기능이 강조된 느낌을 전해준다. 물론 슈나이더 렌즈를 쓴다거나 AMOLED 소재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역시 제품은 기능이 독특한 제품들이 인기가 높다. 그중 지금도 가장 많이 사랑받는 제품은 듀얼미러를 내장한 제품이다. 듀얼미러란 카메라 앞면과 뒷면 모두 액정이 달린 모델로 셀카에 강한 면을 보여준다. 현재 제품중 PL150의 뒤를 이어 PL170, ST600 등의 듀얼미러 제품은 꾸준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삼성에서 나온 신제품 중 SH100이 눈여겨 볼만하다. 이 제품은 와이파이 기능이 들어간 제품으로 터치스크린 기능에 3인치 액정, HD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와이파이 기능을 통해 찍은 이미지나 동영상을 바로 인터넷으로 업로드가 가능하다. 콤팩트 디카 이외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현재 삼성의 미러리스 라인업 제품에서 보여주는 렌즈 제품에 있다. i-Fn(아이핑션)이라는 기능으로 기존의 카메라 본체에서만 조절했던 화이트밸런스, 감도조절 등을 렌즈의 버튼조작만으로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렌즈중 NX 20-50mm 렌즈에 탑재되어 있는데, 디지털과 아날로그적인 기능을 한 번에 담아냄으로써 렌즈에 대한 또 하나의 신기원을 수립했다고 볼 수 있다. 삼성의 경우 자체 렌즈마운트로 호환성이나 렌즈 종류에 있어서는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이 문제도 해결되리라 본다.



▶추천디카 : SH100(사진), PL170, NX11

### 〈시그마〉

자연 그대로의 리얼리티 맛을 제대로 표현

시그마의 경우 주로 렌즈제조사로 알려져 있지만



▶추천디카 : DP시리즈(사진), SD1

DSLR과 콤팩트 디카제품도 출시, 판매 중에 있다. 타 회사와 다르게 센서에 있어 필름과 가장 가까운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제품시리즈는 SD시리즈와 콤팩트 디카의 화질중결자라 불리는 DP시리즈가 있다. 이중 많은 유저들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는 제품이 있다. 국내외적으로 출시예정인 SD1이다. 이 제품은 4500만 화소, 방적방습이 지원되며 11포인트 지원하며 투다이얼로 조리개와 셔터스피드 등이 각기 다르게 조작가능 하여, DSLR 제품 중 중급기 이상의 바디 성능을 보여준다. DP시리즈의 경우 제품은 다양하나 모두 단렌즈 제품으로서 화각이나 조리개 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제품을 선택해 써야 한다. 시그마 제품을 통해 이미지 촬영 후에는 반드시 시그마에서 제공되는 별도의 이미지 프로그램을 써야 하는데, JPEG파일보다는 RAW파일을 추천한다. 풍경사진에 대해 관심이 있는 유저라면 괜찮은 선택이라 본다. 다만 문제는 이미지 하나하나의 큰 용량과 처리속도이다. SD1의 경우 어떨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파나소닉〉

점점 강력해지는 라인업, 이젠 제품으로 승부를 본다

국내 미러리스 디카 시장과 하이엔드 디카 시장에서 상위 제품을 가진 브랜드로 DMC-G시리즈와 GF시리즈가 있으며 콤팩트 디카의 경우 약간씩 차이가 있

지만 고배율 줌, 슬림 디자인, LX시리즈인 하이엔드 디카 제품 등으로 구분되어 판매중이다. 국내에서도 얼마 전 산요와 합병을 통해 기존 라인업제품과 얼마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보여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슈 상품은 GF2와 함께 출시된 3D렌즈가 있다. 이 렌즈는 듀얼렌즈를 탑재해 실제 3D효과로 촬영이 가능하다. 마이크로 포서드 렌즈규격이지만 파나소닉 제품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흑시타 제조사의 마이크로포서드 제품을 쓰고 있다면 그림의 떡인 제품이다.

GF2의 경우 터치스크린 액정, 46만 화소, 빠른 기동성, 편리한 자동장면 인식모드가 있다. 특히 자동장면 인식모드의 경우 파나소닉 유저들 사이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초창기 모델이었던 GF1의 경우 국내 출시가격이 높게 책정되었지만 현재 GF2의 경우 합리적인 가격대라는 평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콤팩트 디카는 LX5를 중심으로 판매중이다. 그 외 FX시리즈, TZ시리즈가 있어 선택의 폭은 전 메이커를 통틀어 꽤 넓은 편이라 볼 수 있다.



▶추천디카 : DMC-GF2(사진), DMC-LX5

### 〈리코〉

센서도 통째로 바꾸는 GXR

리코의 GXR는 렌즈 교환하는 DSLR과 다르게 센서까지 교환하는 제품이다. 크기는 콤팩트하지만 기존 상식과 다르게 센서와 렌즈가 통합된 제품을 끼우면 APS-C사이즈가 되기도 하고 콤팩트 디카 센서 크기



▶추천디카 : GXR

로 변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얼마 전 일본 CP+에서 이번에는 센서가 아닌 렌즈교환이 가능한 제품을 출시해 또 다른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렌즈 교환되는 마운트의 경우 라이카 제품에 대해서만 사용가능하다. 현재 관련 제품의 경우 표준, 고배율 줌, 단렌즈 등 다양한 제품이 판매 중에 있다. 이외 리코의 기존 제품군인 CX시리즈와 GR DIGITAL 제품이 있다. 주로 국내외적으로 마니아 경향이 짙다고 볼 수 있다.

<표>주요 브랜드의 추천디카

브랜드	모델명	특·장점
Canon	600D	회전형 액정화면, 수많은 호환 렌즈제품군
Sony	A55(알파55)	초당 10장 촬영, GPS기능, 파노라마 촬영
OLYMPUS	XZ-1	밝은 조리개값, 아기자기한 액세서리
Nikon	P500	광학36배줌, 풀HD동영상 촬영
삼성전자	VLUU SH100	무선전송기능, 터치스크린액정
Panasonic	DMC-GF2	자동장면 인식모드, 풀HD동영상

### 카메라 구입 및 촬영 Tip

1. 구매가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라. 일단 제품구매는 돈이 나간다. 알뜰함이 우선이다.

2. 무게 VS 가격 VS 화질 VS 기능 모든 것이 완벽할 순 없다. 나에게 맞는 제품을 골라라. 미러리스 디카, 콤팩트 디카, DSLR 등 제품군이 다양한 편이다. 최근 미러리스 디카 제품이 뜨는 것은 사실, 종류도 다양하고 모양도 예쁘다. 다만 한번 사서 끝날 제품이 아니라는 것, 추가로 구매할 것이 많다. 전용케이스, 고용량메모리 등 눈에 보이는 것 외에도 꾸미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3. 발품 파는 자가 싸게 산다. 온/오프라인 매장을 비교하고 카드신공을 적절하게 쓰자. 많은 유저들이 온라인에서 가격비교나 야심 주가는 사이트 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다. 시기에 맞게 구매한다면 무이자 할부나 쿠폰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 시 패키지 구매가 좋은지, 필요한 기본구성품 구매가 나인지 체크하길 바란다. 몇몇 판매처의 경우 패키지를 통해 좀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품만을 사기보단 함께 살때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다.

4. 구매 후 혼자서 찍기보다는 동호회나 지인들과 함께 찍는 습관을 가져야 사진실력도 쑥쑥 오른다. 나 혼자 찍고 사진에 편견을 갖기 보다는 함께 공유하며 평가하는 것을 통한다면 더 큰 세상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5. 애써 구입한 카메라를 장롱 속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자. 비싼 돈 주고 샀더니만 가방 안에 '꼭' 해서 다시 뺄 생각은 안한다면 곤란하다. 가급적 카메라는 외출할 때마다 가지고 다닌다는 생각을 하자. 또한 찍은 후에는 내 하드디스크, 메모리 안에만 저장하지 말고 블로그, 페이스북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6. 찍은 사진에 대한 관리 방법을 세우자. 날짜별, 주제별로 정리해서 활용한다면 찾기도 좋고 활용하기도 좋다.

7. 사진을 찍을 때 주제를 정하자. 주제를 정할 때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것이 좋다.

8. 많이 찍어라. 디지털은 필름카메라와 다르게 필름 값 걱정 없이 찍을 수 있다. 메모리가 꽉 찰 때까지 동영상, 이미지를 자주 찍어라.

9. 자신의 카메라와 액세서리 제품에 대한 A/S 장소는 미리 체크해놓자. 갑자기 고장 나면 당황하게 된다.

10. 사진의 마지막은 역시 뽑아야 제 맛. 인화한 사진을 보며 이야기 할 때 그 즐거움은 배가 된다. 보통 사진인화 크기는 3x5, 4x6로 많이 이용하지만 A3크기 이상으로 뽑아보면서 사진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도 가지기 바란다.